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도정임** 청주대학교

본 연구는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수도권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 345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한 318부가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의 3가지 변인으로 전공만족도는 일반 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을 하위요인으로, 교수-학생상호작용은 신뢰도와 친밀감을 하위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학교환경적 적응을 하위요인으로 총 40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위한 상관분석,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별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관계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적응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교과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경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대학환경적 적응과 교과만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신뢰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대학환경적 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대학환경적 적응과 신뢰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넷째, 전공만족의 총점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학생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은 무용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 요인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무용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스러운 교과과정의 제공되어야 하며 교수는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무용전공, 대학생,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 이 논문은 2016-2017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do9527@hanmail.net

I. 서론

1. 연구필요성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며 사회진출을 준비한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을 의미하며 대학생활을 통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경험하며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능력은 사회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이란 심리적, 정서적인 다차원적인 현상의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응여부는 교우관계, 가정환경, 교수와의 관계, 진로준비, 취업, 사회적 지지, 전공 관련 교육내용, 학과와 학교의 지명도, 전공만족도 등 많은 변인들의 영향을 받지만(도정임, 2016), 특히 전공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이 학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오지현(2014)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다는 보고와 조영권(2014)과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2015)의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전공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전공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적응력 저하를 야기시키며 나아가 높은 전공만족도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의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 전공 선택 시기가 빠른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정경아, 조지현(2015)의 “전공선택 시기가 빠른 경우(고등학교 재학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대입원서 접수 전, 대입 원서 접수기간)보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라는 보고와 같이 대학입시 직전에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전공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 학습몰입,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되어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은 김점남, 천혜원(2013)의 교수와 학생의 상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와 같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은 김성덕(2016)의 교수-학생상호작용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여 학업능률을 상승시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학업성취로 인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활적응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이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특히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술대학생들에게는 교수의 영향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 무용예술은 오랜 시간 교수와 같이 땀을 흘리며 하는 예술작업으로 타 예술에 비해 교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교수에 따라 무용을 지속할 수도, 중도에 포기 할 수도, 유학을 갈 수도 있다. 아마도 교수에 의해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무용전공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고미나, 곽영희

(2015)의 대학생의 성인애착, 교수-학생상호작용,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구조적관계, 김은주(2014)의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만족도, 자기주도학습간의 관계검증, 김혜정, 한송이(2010)의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성취 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정윤, 신혜숙(2010)의 한국대학에서의 교수-학생상호작용의 성격과 대학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대학특성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김선연, 신호진(2012)의 대학생의 학과교수 만족도 구성요인 타당화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분석, 노수림, 배성아(2014)의 정서지능,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학생과는 다르게 전공만족도가 높고 교수-학생 간에 밀접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 예술전공대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여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예술분야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분야의 하나인 무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나아가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2016년 현재 수도권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 345명을 연구대상의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직접 대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설문지의 목적과 기입 방법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 기입법을 이용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 총 345부를 회수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한 318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피검자들의 일반적 특성은<표 1>과 같이 총 318명 중 성별로는 여학생이 257명으로 80.8%, 남학생이 61명으로 19.2%, 학년별로는 1학년 88명으로 27.7%, 2학년이 97명으로 30.5%, 3학년이 85명으로 26.7%, 4학년이 48명으로 15.1%. 전공별로는 발레가 95명으로 29.9%, 현대무용이 110명으로 34.6%, 한국무용이 113명으로 35.5%, 무용경력은 5년 미만이 62명으로 19.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49명으로 46.9%, 10년이상 15년 미만이 87명으로 27.4%, 15년 이상이 20명으로 6.3%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18$)

구분		N (빈도)	% (백분율)
성별	남학생	61	19.2
	여학생	257	80.8
학년	1학년	88	27.7
	2학년	97	30.5
	3학년	85	26.7
	4학년	48	15.1
전공	발레	95	29.9
	현대무용	110	34.6
	한국무용	113	35.5
경력	5년 미만	62	19.5
	5년 이상 10년 미만	149	46.9
	10년 이상 15년 미만	87	27.4
	15년 이상	20	6.3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전공만족도 측정을 위해 하혜숙(2000)의 측정도구로 유승혜, 조영아, 김정아(2010)가 학교만족을 제외시킨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만족 3문항, 인식만족 4문항, 교과만족 5문항,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생상호작용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Fisher(2001)가 제작한 교수-학생 관계척도(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와 지은림과 김성숙(2004)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조남홍(2008)의 설문지 중 2개의 하위요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친밀감 6문항, 신뢰감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활적응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 (1989)가 개발하고 현진원(1992)이 번안한 학교생활 적응척도(SACQ : Student Adjustment college Questionnaire)의 문항을 기초로 강미영(2012)이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여 개인·정서적 적응 4문항, 학업적 적응 4문항, 사회적 적응 2문항, 대학환경적 적응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도는 <표 2>와 같이 전공만족도의 설문문항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945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만족 .911, 인식만족 .841, 교과만족 .911, 관계만족 .880이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설문 문항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965로 나타났으며 친밀감 .945, 신뢰감 .939이다. 대학생활적응의 설문문항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883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서적 적응 .820, 학업적 적응 .632, 사회적 적응 .750, 대학환경적 적응 .857이다.

표 2. 측정도구의 타당도

구분		문항수	Cronbach α	
전공만족	일반만족	3	.911	.945
	인식만족	4	.841	
	교과만족	5	.911	
	관계만족	3	.880	
교수-학생 상호작용	친밀감	6	.945	.965
	신뢰감	6	.939	
대학생활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4	.820	.883
	학업적 적응	4	.632	
	사회적 적응	2	.750	
	대학환경적 적응	3	.857	

3. 자료처리

분석방법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과의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알기위한 상관분석, 각 영역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전공, 경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 < .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간 관계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전공만족도 총점과 대학생활적응 총점간의 상관관계수($r = -.245, p < .05$)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인식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 반응($r = -.028, p < .05$)이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상호작용과 대학생활적응 총점간의 상관관계수($r = -.191, p < .05$)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이 대학생활적응 총점간의 상관관계수($r = -.149, p < .05$)로 신뢰도보다 유의미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 순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의 상관관계수($r = -0.035, p < .05$)는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환경적 적응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 순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학생상호작용 총점과 전공만족도 총점($r = .668, p < .05$)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두변인간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간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n=31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1												
②	.620**	1											
③	.728**	.691**	1										
④	.600**	.469**	.763**	1									
⑤	.844**	.814**	.944**	.822**	1								
⑥	.495**	.437**	.635**	.701**	.662**	1							
⑦	.440**	.427**	.602**	.665**	.625**	.859**	1						
⑧	.485**	.448**	.642**	.708**	.668**	.964**	.964**	1					
⑨	-.125**	-0.028	-.177**	-0.051	-0.095	-0.035	-0.100	-0.070	1				
⑩	-0.091	-0.042	-0.059	0.042	-0.066	-0.077	-0.088	-0.085	.506**	1			
⑪	-.181*	-.186**	-.221**	-.120**	-.211**	-0.093	-.189**	-.146**	.557**	.592**	1		
⑫	-.399**	-.351**	-.447*	-.317*	-.445**	-.291**	-.353**	-.334**	.447**	.474**	.641**	1	
⑬	-.244**	-.175**	-.255*	-.160**	-.245**	-.149**	-.220**	-.191**	.832**	.781**	.819**	.780**	1

* $p < .05$.

①일반만족②인식만족③교과만족④관계만족⑤전공만족도총점⑥친밀감⑦신뢰감⑧교수-학생상호작용⑨개인·정서적적응⑩학업적적응⑪사회적적응⑫대학환경적적응⑬대학생활적응.

2.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을 독립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교과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564, p < .05$)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6.6%($R^2 = .066$)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4.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 ²
	B	SE	β					
일반만족	-.125	.070	-.147	-1.787	.075			
인식만족	.046	.075	.048	.614	.540	6.564	0.000	0.066
교과만족	-.234	.098	-.262	-2.381	.018			
관계만족	.084	.068	.16	1.241	.216			

* $p < .05$

전공만족도의 각각의 요인은 <표 5>와 같이 교과만족($F=21.964, p < .05$), 일반만족($F=20.057, p < .05$), 인식만족($F=9.928, p < .05$), 관계만족($F=8.267, p < .05$)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만족 6.5%($R^2 = .065$), 일반만족 6%($R^2 = .060$), 인식만족 3%($R^2 = .030$), 관계만족 2.5%($R^2 = .025$)의 순으로 교과만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표 5. 전공만족도의 요인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p	R ²
	B	SE	β				
일반만족	-.208	.047	-.244	-4.478	20.057	0.000	0.060
인식만족	-.166	.053	-.175	-3.151	9.928	0.002	0.030
교과만족	-.228	.049	-.255	-4.687	21.964	0.000	0.065
관계만족	-.126	.044	.160	-2.875	8.267	0.004	0.025

* $p < .05$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표 6>과 같이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경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대학환경적 적응과 교과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20%($R^2 = .20$)의 설명력으로 전공만족도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표 6.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별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p	R ²
		B	SE	β				
개인·정서적 적응	일반만족	-.148	.066	-.125	-2.236	4.999	.026	0.016
	인식만족	-.037	.074	-.026	-.500	0.025	.617	0.001
	교과만족	-.145	.069	-.117	-2.067	4.354	.038	0.014
	관계만족	-.056	.062	-.051	-.903	0.816	.367	0.003
학업적 적응	일반만족	-.074	.046	-.091	-1.62	2.623	.106	0.008
	인식만족	-.038	.051	-.042	-.0784	0.560	.455	0.002
	교과만족	-.050	.048	-.059	-1.045	1.092	.297	0.003
	관계만족	-.032	.042	-.042	-.745	0.054	.457	0.002
사회적 적응	일반만족	-.203	.062	-.181	-3.268	10.683	0.001	0.033
	인식만족	-.234	.069	-.186	-3.371	11.367	0.001	0.035
	교과만족	-.260	.065	-.221	-4.034	16.270	0.000	0.049
	관계만족	-.125	.058	-.120	-2.125	4.633	0.032	0.014
대학환경적 적응	일반만족	-.472	.061	-.399	-7.740	59.915	0.000	0.159
	인식만족	-.464	.070	-.351	-6.637	44.535	0.000	0.124
	교과만족	-.554	.062	-.447	-8.888	79.003	0.000	0.200
	관계만족	-.347	.058	-.317	-5.939	35.270	0.000	0.100

* $p < .05$

3.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과 신뢰감을 독립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신뢰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9.012, p < .05$)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4.8%($R^2 = .048$)의 설명력을 보인다.

표 7.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 ²
	B	SE	β					
친밀감	-.121	.087	.149	-1.396	0.164	9.012	0.000	0.048
신뢰감	-.284	.087	-.348	-3.254	0.001			

* $p < .05$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 각각은 <표 8>과 같이 신뢰감($F=16.028$, $p < .05$), 친밀감($F=7.219$, $p < .05$)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감 4.8%($R^2 = .048$), 친밀감 2.2%($R^2 = .022$)의 순으로 신뢰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표 8. 교수-학생상호작용 하위요인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p	R ²
	B	SE	β				
친밀감	-.121	.045	-.149	-2.689	7.219	0.008	0.022
신뢰감	-.179	.045	-.220	-4.003	16.028	0.000	0.048

* $p < .05$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표 9>와 같이 사회적 적응과 신뢰감, 대학환경적 적응과 친밀감, 대학환경적 적응과 신뢰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학환경적 적응과 신뢰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12.4%($R^2 = .124$)의 설명력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표 9. 교수-학생상호작용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p	R ²
		B	SE	β				
개인·정서적 적응	친밀감	-.040	.063	-.035	-.631	0.396	0.529	0.001
	신뢰감	-.113	.063	-.100	-1.785	3.187	0.075	0.010
학업적 적응	친밀감	-.059	.043	-.077	-1.369	1.873	0.172	0.006
	신뢰감	-.068	.044	-.088	-1.571	2.468	0.117	0.008
사회적 적응	친밀감	-.099	.060	-.093	-1.657	2.746	0.098	0.009
	신뢰감	-.203	.059	-.189	-3.425	11.727	0.001	0.036
대학환경적 적응	친밀감	-.327	.061	-.291	-5.400	29.161	0.000	0.084
	신뢰감	-.399	.060	-.353	-6.703	44.925	0.000	0.124

* $p < .05$

4.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의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공만족의 총점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10.319$, $p<.05$). 교수-학생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총점과 교수-학생상호작용의 총점은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5.6%($R^2=.056$)의 설명력을 보인다.

표 10.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i>t</i>	<i>F</i>	<i>p</i>	R^2
	<i>B</i>	<i>SE</i>	β				
전공만족도	-.215	.074	-.212	-2.889	10.319	.004	0.056
교수-학생 상호작용	-.042	0.62	-.050	-.682			

* $p<.05$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총점과 교수-학생상호작용 하위요인 총점 각각은 <표 11>과 같이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총점($F=20.207$, $p<0.000$), 교수-학생상호작용 하위요인 총점($F=12.014$, $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총점은 6.0%($R^2=.060$)로 교수-학생상호작용 하위요인 총점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표 11.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총점, 교수-학생상호작용 하위요인 총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i>t</i>	<i>F</i>	<i>p</i>	R^2
	<i>B</i>	<i>SE</i>	β				
전공만족도	-.248	.055	-.245	-4.495	20.207	0.000	0.060
교수-학생 상호작용	-.162	.047	-.191	-3.466	12.014	0.001	0.037

* $p<.05$

IV. 논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 총점과 대학생활적응 총점간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인식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 적응이 가장 낮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주, 김윤영, 이송미(2015), 김봉희, 신정하(2016), 김미숙, 박소미, Wang chengying, 서하얀, 주영주, 이경열, 최은숙(2010), 최현주 (2017)의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이미 전공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습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있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추구하려는 특성으로 대학생활적응과는 커다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교수-학생상호작용과 대학생활적응 총점간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이 대학생활 총점간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낮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송윤정(2013)의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과 신뢰감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지만,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이 신뢰감보다는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는 정은이, 박한용(2009)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할 수 있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 순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의 상관관계수는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환경적 적응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 순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학생상호작용 총점과 전공만족도 총점과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두변인간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교과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6.6%($R^2 = .066$)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김지희, 임정희(2016)의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의 효과가 확인되었다라는 보고와 일치한다. 전공만족의 하위요인 각각은 교과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만족 6.5%($R^2 = .065$), 일반만족 6%($R^2 = .060$), 인식만족 3%($R^2 = .030$), 관계만족 2.5%($R^2 = .025$)의 순으로 교과만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경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대학환경적 적응과 교과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20%($R^2 = .20$)의 설명력으로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의 네 하위요인 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이 결과는 서은선, 정경아(2015)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했다는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에서는 학업적 적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신뢰감, 친밀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감 4.8%($R^2 = .048$), 친밀감 2.2%($R^2 = .022$)의 설명력을 보인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사회적 적응과 신뢰감, 대학환경적 적응과 친밀감, 대학환경적 적응과 신뢰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대학환경적 적응과 신뢰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12.4%($R^2 = .124$)의 설명력으로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이 결과는 권재환, 박희현(2014)의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 수록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보고와 박진화, 이은경(2016)의 대학생활적응은 교수 신뢰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다라는 결과보고와는 일치한다.

넷째, 전공만족의 총점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학생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총점과 교수-학생상호작용의 총점은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5.6%($R^2 = .056$)의 설명력을 보인다. 이 결과는 김민선, 최보금(2016)의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와 송윤정(2013)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무용전공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전공 습득과정을 통해 뚜렷한 인식과 강한 애착력을 가지고 있어 대학생활의 적응보다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추구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생활적응과는 커다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수도권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 345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한 318부가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의 3가지 변인으로 전공만족도는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을 하위요인으로, 교수-학생상호작용은 신뢰도와 친밀감을 하위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을 하위요인으로 총 40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알기위한 상관분석, 각 영역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관계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적응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이 대학생활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교과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네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경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환경적 적응과 교과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신뢰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상호작용의 두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별 간에는 대학환경적 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대학환경적 적응과 신뢰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넷째, 전공만족의 총점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학생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론은 무용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상호작용의 하위 요인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무용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스러운 교과과정이 제공되어야하며 교수는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미영 (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탐색행동, 스펙5종별 준비정도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고미나, 광영희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 교수-학생상호작용,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구조적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Vo.13 No.3, 73-84.
- 권재환, 박희현 (2014).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구조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21권 2호(통권58호), 55-73.
- 김미숙, 박소미, Wang chengying, 서하얀, 주영주, 이경열, 최은숙 (2010).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 및 직업관. 한국 응급구조학회논문집, 14(3), 29-40.
- 김민선, 최보금 (2016). 공학전공 신입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고차원적 학습활동, 진로몰입 간의 성차모형 검증: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만족도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4권 1호 (통권169호), 151-181.
- 김봉희, 신정하 (2016). 간호학과 성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가 학과적응에 미치는 효과.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7권 5호, 141-166.
- 김선연, 신호진 (2012). 대학생의 학과교수 만족도 구성요인 타당화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권 1호 (통권58호), 207-226.
- 김성덕 (2016). 체육전공 신입생의 전공만족 및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통권 제14권 제3호, 471-481.
- 김윤주, 김윤영, 이송미 (2015). 아동영어교육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통권 제13권 제9호, 39-47.
- 김은주 (2014). 대학생들의 학습상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생상호작용, 대학만족도, 자기주도학습간의 관계검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학회, Vol,14 No.7, 209-231.
- 김점남, 천혜원 (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외식경영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식산업학회지, 통권 제9권 제3호 통권 제21호, 81-92.
- 김지희, 임정희 (2016). 전공만족도가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6권 1호 (통권15호), 91-100.
- 김혜정, 한송이 (2010).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산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성취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 Vol.21 No-, 10-19.
- 노수림, 배성아 (2014). 대학생의 정서 지능,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Vol. 14 No. 2, 343-362.
- 도정임 (2016). 연극학과 학생들의 전공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 10권1호, 61-77.
- 박진화, 이은경 (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수신뢰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 7호 (통권67호), 831-844.
- 서은선, 정경아 (2015). 일 대학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시과학회지, 17권 3호, 213-225.
- 송윤정 (2013).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 오지현 (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873-884.
- 유승혜, 조영아, 김정아 (2010). 비서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와 취업역량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비서학 논총, 19(1), 165-188.
- 이가영, 최태일, 이용선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 컨설팅 리뷰, 제6권 제2호, 197-209.
- 정경아, 조지현 (2015). 일 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통권 제6권 제5호, 143-155.
- 정은이, 박한용 (2009). 교수신뢰 척도에 관한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405-426.

- 조영권 (2014).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방사선사 이미지, 전공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2호, 283-293.
- 조남홍(2008). 체육수업에서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은림, 김성숙 (200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문화 연구소 논문집
- 최정윤, 신혜숙 (2010). 한국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격과 대학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대학특성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32-154.
- 최현주 (2017).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68-77.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Baker & Siryk(1989). *Student adaptation to school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ABSTRACT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on Their School Life

Do Jung-Nim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ance major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45 students major in Dance in universities located at capital area selected. 27 unreliable responses were excluded and 318 remained were collected for the analysis.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have forty questions regarding three variables such as satisfaction with major,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Sub-factors of satisfaction with major are General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ub-factor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re reliability and intimacy. Sub-factors of adjustment of school life are affective reaction, major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and adjustment to school environment. Correlation analysis with IBM SPSS Statistics 24.0 was conducted to find an association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ub-factor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with its sub-factors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Detailed results are presented below.

1. The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major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djustment to school life. relationship satisfaction, a sub-factor of satisfaction with major had a low positive correlation with major adjustment, a sub-factor of adjustment to school life, but it was shown that there was no statistic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m.
2. Among four sub-factors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only Curriculum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social adjustment and adjustment to school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when comparing four sub-factors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four sub-factors of adjustment to school life.
3. Sub-factor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with adjustment to school life. Sub-factor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with adjustment to school environment.
4. Overall score of satisfaction with major had a significant influence statistically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but Faculty-student interaction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In conclusion, major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influence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partially but strongly depending on sub-factor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adaptability of school life, appropriate and satisfactory curriculum should be provided and the faculties should be personable, well qualified and competent to build trust with student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Major satisfaction, Faculty-student interaction, Adjustment to school life

논문투고일: 2017. 09. 05
논문심사일: 2017. 10. 06
심사완료일: 2017. 10. 17